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민속스포츠의 역사적 위치와 과제

유정애 · 진연경* (중앙대학교) · 이가람 (경상대학교)

The Historical Status and Tasks of Korean Folk Sports in National Physical Education Curricula

You, JeongAe · Jin, Yeonkyung (Chung-Ang Univ.) · Lee, Ka Ram (Gyeongsang National Univ.)

요약

본 연구는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민속스포츠의 위치와 과제를 역사적으로 조명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수준 교육과정 문서(1차~2015개정) 및 신문 등의 자료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1~3차 교육과정 시기 민속놀이의 가치를 지향하며 교육되어져 오던 민속스포츠는 4차~7차 교육과정 시기까지 서구 스포츠 중목중심의 체육 교육과정 편성으로 투기도전 활동 내에서만 명맥을 유지해왔다. 그 후 2007개정 교육과정부터 전통 여가 영역이 포함되며 재도약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다시 투기도전으로만 남아 있게 되었다. 이는 민속 문화를 담은 현대스포츠로의 발전 노력 미비와 민속놀이 내 사라진 공동체 문화가 원인이 되고 있으며,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속스포츠의 교육용 문화콘텐츠 개발, 교육내용 체계화, 뉴스포츠화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historical status and tasks of folk sports in national physical education(P.E.) curricular in order to promote Korean folk sports in the future. For doing this, the national curriculum documents and newspapers are analyzed fro the 1st to 2015 national curriculum periods. As a result, the 1st to 3rd curriculum periods have focused on the play-like folk sports, whereas the 4th-7th curriculum periods have emphasized one-on-one physical math, due to introducing westernized sports in Korea. After that, an educational content like 'Traditional leisure' has been introduced since in 2007 revised national P.E. curriculum and could be a good chance to promote folk sports in Korea. However, the chance is again lost since in 2015 revised national P.E. curriculum. These low status of folk sports has caused lack of efforts to transform modernized folk sports and lack of community culture in folk sports. In the future, three tasks such as developing educational content, content system, and being newports of folk sports are accomplished for future development of Korean folk sports.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8067020).

Key words: National Curriculum, Folk Sports, School Physical Education

* pooh7936@gmail.com

I. 서론

우리나라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다.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학교체육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의 근간을 이루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전체 체육계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크다. 지난 10차례에 걸친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의 역사를 살펴보면, 8차에 해당하는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학교체육은 크게 변화되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학교체육 프로그램은 전형적인 스포츠 종목중심(예: 축구, 농구, 배구, 핸드볼, 체조, 육상 등)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7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이후로 스포츠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신체 활동중심으로 학교체육 프로그램이 크게 개방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유정애, 2009, 13).

신체활동중심으로 학교체육 프로그램의 경계가 유연해지면서 기존에 학교체육활동 안으로 유입될 수 없었던 다양한 신체활동(예: 오래 걷기, 줄넘기, 조깅, 등산, 티볼, 킨볼, 음악줄넘기, 꾸미기 체조, 요가, 티니클링 등)이 자유롭게 학생들에게 제공되기 시작했다. 즉 기존에는 특정한 스포츠(또는 운동)가 학교체육 프로그램의 중심이 되었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학교체육 현장은 단위학교의 초등교사 또는 체육교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체육교육 프로그램을 선택 및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변화된 학교체육 환경 속에서 뉴스포츠와 같은 체육프로그램은 2007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이전과 달리 학교체육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활성화되고 있다(진연경, 유정애, 2016, 351). 반면에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스포츠는 우리의 것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개인의 식보다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당국과 학교관리자들의

왜곡된 시각, 시설과 장비의 부족, 교사의 전문성 미비, 비정형화된 민속놀이 체계 등에 기인하여 학교 현장에서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동아일보, 1985. 11. 18; 한겨레, 1989. 4. 20).

학교체육프로그램에서 민속스포츠의 비활성화는 한때 “국적 없는 학교체육”이라는 비판까지 야기했다(한겨레, 1993. 3. 30). 이러한 학교체육프로그램의 편중된 서구화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민속스포츠(또는 민속놀이)는 타 스포츠(또는 운동)와 달리 우리나라 전통적인 신체 문화를 담고 있는 신체 활동(손천택, 김일하, 2015, 69; 이재학, 김혁출, 신재득, 2014, 182)이자, 다양한 교육적 함의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교육내용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학교체육활동은 과거보다 다원화되었다. 기존의 정과체육 수업이라는 단일 체육활동에서 이제는 3개의 다양한 체육활동이 우리나라 학교체육 현장에 존재한다. 정과 체육 수업 이외에 비교과 교육과정인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으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이 2012년부터 모든 중학교에 공식적으로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다. 또한 2013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가 2016년도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정식 운영되고 있다. 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는 ‘예술·체육활동’이 포함되어 있어 정규 체육 수업 이외의 추가적으로 진로적성에 맞는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교육부, 2015b; 유정애, 진연경, 2016, 24; 황지연, 유정애, 2016, 40). 이와 같은 변화된 학교체육 환경 속에서 민속스포츠는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학교체육 안의 생활체육’ 특성을 갖고 있는 체육활동 시간이 과거보다 대폭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민속스포츠가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쳐 왔고 현재 어떤 모습으로 위치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역사적 관점에서 민속스포츠의 발자취에 대한 검토는 민속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를 확인하고, 학교체육 현장의 교육내용 선정에 있어 민속스포츠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민속스포츠의 미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민속스포츠의 위치를 역사적으로 조명해 보고, 우리나라 학교체육현장에서 민속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역사적 과제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문헌고찰에 의존할 것이다. 특히 교육부에서 발간한 각 개정 시기별 국가 수준 교육과정 문서¹⁾, 신문, 단행본 등의 자료를 사용할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교육과정 문서를 중심으로 각 교육과정 문서에 담긴 민속놀이 관련 내용을 분석한 후에 민속스포츠의 역사적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민속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과 방향을 정립하는 순으로 접근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문서화된 1955년부터 2015년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시기를 시대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II .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민속스포츠의 역사적 위치

1. 체육과 교육과정 개정시기별 민속스포츠의 교육 현황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은 목표-내용-방법-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 시기별 구성요소는 다르지

만, 본 연구에서는 내용과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문서 전체를 분석하였다. 민속스포츠와 관련된 문서상의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면 교육과정 개정 시기(제1차 체육과교육과정 -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

(1) 1차 교육과정시기

1차 교육과정 시기 국민학교 교육과정(문교부, 1955a)은 체조놀이와 놀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조놀이-재주놀이-맨손놀이-힘내기의 영역에 민속놀이인 씨름을 국민학교 수준의 놀이로 변형한 내용이 구성되어 있었다. 즉, 재주놀이의 일환으로 1,2학년은 맨손놀이 - 힘내기의 앉은씨름 외다리 씨름, 3,4학년은 맨손놀이 - 힘내기 - 한손씨름, 5,6학년은 힘내기 - 몸씨름의 내용이 교과과정의 일환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중학교(문교부, 1955b)와 고등학교(문교부, 1955c)의 경우 맨손체조, 기계체조, 스포츠(육상, 구기(축구(남자), 농구(남,녀), 송구(남,녀), 배구(남,녀), 스피드볼(남자), 소프트볼(남자), 트라이볼(남자)), 무용, 해업(남,녀), 투기(유도(남), 씨름(남))의 교과 내용 중 민속 스포츠는 남학생만 하는 스포츠인 씨름으로 소개된 것이 전부이다.

(2) 2차 교육과정 시기

이 시기 국민학교 교육과정(문교부, 1969)은 체조놀이(맨손체조놀이, 재주놀이), 놀이(달리기놀이, 던지기놀이, 뽀뽀놀이, 공놀이, 물놀이), 춤놀이(리듬놀이, 표현놀이)의 내용구성에서 놀이-물놀이-씨름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의 씨름은 물놀이에 편성된 것으로 보아, 전통놀이에서의 씨름을 의미하는 내용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중학교(문교부, 1963a)와 고등학교(문교부,

1963b) 교육과정 내용은 1차 교육과정 시기와 마찬가지로 투기영역 내에 씨름이 남아만 하는 스포츠로 제시되고 있다

(3) 3차 교육과정 시기

이 시기 교육과정은 학년별로 보다 자세하게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민학교(문교부, 1973a)의 경우 1,2,3학년 기초력 운동에 순환운동, 맨손체조, 질서운동, 씨름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씨름은 ‘굳센 힘과 재치 있는 동작으로 억척스럽게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운동’으로 제시되며 1,2학년은 ‘외다리 씨름’과 ‘당기기와 밀기’의 신체활동이, 3학년은 줄씨름이, 4학년은 줄씨름, 팔씨름과 등 씨름이 추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5, 6학년에는 씨름 경기와 유사한 형태의 내용(들어서 넘어뜨리기, 발걸어 넘어뜨리기, 손으로 넘어뜨리기 등의 남학생을 위한 내용과 더불어 팔씨름, 줄씨름, 등씨름)이 포함되어 있다. 또, 기초력 운동의 일환으로 태권도가 교육과정 문서 내에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민속무용 영역 내에 2학년은 설날놀이, 3학년은 제기차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다. 여기서 교육과정 내 지도상의 유의점을 살펴보면,

씨름과 태권도는 소신있는 결단력과 실행력을 길러준 우리 고유의 역기이므로 이를 계승하여 건인 불발의 기백을 가진 새 국민을 기를 수 있도록 계획적인 지도를 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민속 놀이인 활 쏘기, 그네 뛰기, 널 뛰기, 차전 놀이, 고 씨움놀이, 장치기, 제기 차기 등은 교육적인 가치와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이 지도하여야 한다(국민학교 교육과정, 1973).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3차 교육과정 시기에 씨름, 태권도, 제기차기 등의 민속놀이 관련 내용이 이전 시기보다 더 많이 편성된 것은 이러

한 민속 놀이가 단순히 체육활동의 의미만을 갖는 다기 보다는 우리 고유의 정신이며 이를 계승하고자 하는 민족 교육의 일환으로 의도적으로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문교부, 1973b)의 경우, 각 학년별 목표 내에 민속놀이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다. 민속놀이와 관련한 주된 성취목표를 실천 - 생활화로 계열성 있게 제시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서 순화를 강조하며, 관련 태도와 능력 계획 수립을 큰 틀로 제시하여, 민속놀이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각 학년별 내용<표 1>에서는 씨름, 태권도 외에 민속놀이가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학교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지도상의 유의점 내에 씨름 및 태권도의 교육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역시 민속놀이 교육을 통해 전통을 잇고, 소신과 끈기와 같은 정서를 함양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평가 된다.

고등학교(문교부, 1974)에서는 민속놀이에 관해 투기영역 내 남학생들만 학습하는 내용으로 씨름과 태권도를 담고 있다. 필수요소로 지도되고 있긴 하지만 남학생만이 참여하는 종목으로 이루어지는 한계를 가진다. 초,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민속놀이와 관련한 기타의 내용은 문서상 제시되지 않고 있다.

(4) 4차 교육과정

국민학교(문교부, 1981a)에서는 3학년에서부터 민속놀이가 ‘계절 및 민속 운동’이라는 영역 내에 제시되고 있다<표 1>. 3차 교육과정까지 ‘지도 및 유의사항’에서 제시되던 다양한 민속놀이가 3학년(팽이치기, 연날리기), 4학년(제기차기, 사방치기)의 내용에 담겨 있으며, 그동안 주로 강조되어 온 씨름과 태권도는 5,6학년의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었다. 이와 더불어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내에 “(1) 5 학년 및 6 학년의 기계 운동과 구기 운동

및 민속 운동은 남녀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도한다.”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중·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에게만 지도해 오던 씨름과 태권도는 사실 초등학교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모두에게 지도되어 왔으나, 4차 교육과정부터는 씨름과 태권도의 지도에 있어 성차를 유의해야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문교부, 1981b)의 경우 개인 및 대인운동의 다양한 종목 내에 씨름과 태권도가 남학생이 하는 활동으로 매 학년 편성되어 있다.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에 따라 개인 및 대인운동의 여러 가지 운동 2가지 중 1종목은 투기종목으로 학습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과정 상으로는 4차 교육과정 시기 중학교 남학생의 경우 씨름 혹은 태권도 중 한 종목은 매 학년 학습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등학교(문교부, 1981c)의 경우 투기 영역에 씨름과 태권도의 경기 방법 및 규칙 이해의 내용이 제시되고 있으며, 지도상의 유의점에 남학생은 투기를 매 학년 당 1종목씩 선택하여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5차 교육과정

국민학교(문교부, 1987a)의 경우 이 시기 부터는 통합교과(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가 실시되어, 체육과 교육과정 내에는 3학년부터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계절 및 민속운동’ 영역 내 3,4학년에는 간단한 민속운동 하기가, 5,6학년에는 여러 가지 민속운동 하기로 민속놀이가 제시되고 있다. 민속운동이라는 큰 내용범주로만 제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계절 및 민속운동이라는 복합적 영역에 제시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반드시 지도되었을 가능성은 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중학교 체육과 교육과정(문교부, 1987b)은 문서상 ‘민속운동’이라는 용어가 사라진 그 시작점이라 분석 할 수 있다. 심동적 영역의 개

인 및 단체운동에서 여러 가지 개인 경기 익히기, 여러 가지 구기 경기 익히기 의 내용을 단순히 제시하고 있어, 교과서에서는 개인 경기 내에 씨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추측만이 가능할 뿐이다. 내용 영역 내에 계절 및 민속운동의 영역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내에는 “계절 및 민속 운동은 관련된 지도 내용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알맞도록 지도한다”라는 내용이 교육과정 문서 내용상 일관성 없이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문교부, 1988)의 경우 보통교과 내 체육과의 교육과정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심동적 영역 내 투기 영역에서 씨름과 태권도가 제시되고 있었다.

(6) 6차 교육과정

국민학교 교육과정(교육부, 1992a)의 경우 내용 체계 상 ‘계절 및 민속운동’ 내 다양한 민속 운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학년에 연날리기, 굴렁쇠 굴리기, 팽이치기, 4학년에는 널뛰기, 제기차기, 5,6학년에는 태권도와 씨름이 제시되고 있다. 학년별 지도내용 내에도 제시된 민속 운동을 ‘공간과 힘을 다르게 하여(3학년)’, ‘몸 모양, 공간, 힘을 다르게 하여(4,5,6학년)’라고 안내하며, 과학적 원리와 함께 우리 고유의 스포츠를 지도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였다. 이와 더불어 지도상의 유의점에서 ‘민속 운동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라고 규정하며 민속운동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중학교 교육과정(교육부, 1992b)에서는 5차 교육과정 시기와 마찬가지로 민속운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4. 방법’ 내에서 개인 및 단체운동의 예시 종목에 씨름을 제시함으로써 학교의 선택에 따라 개인 운동 내에서 씨름과 태권도 등을 지도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교육부, 1992c), 내용

체계의 투기 영역 내에 씨름, 태권도의 종목과 함께, ‘과학적 기초 지식, 경기 내용과 규칙 및 전략, ‘타인 존중, 경쟁심, 감투 정신’을 제시하고 있다.

6차 교육과정의 경우, 중학교 고등학교의 내용은 이전 개정시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초등학교에서 보다 구체적인 종목을 과학적 원리와 함께 제시하며 교수-학습을 안내하고 있는 특징을 가진다.

(7)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1997)에서는 ‘게임 활동’ 영역 내 민속활동이 필수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다. 학년별 내용 내에 4학년에서는 제기차기와 널뛰기의 이해와 적용이, 5,6학년에서는 태권도의 이해와 적용이 제시되고 있다.

중학교(교육부, 1997)에서는 2학년(8학년) 내용에서만 씨름이 농구, 배드민턴과 함께 필수 종목으로 제시되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문서상 민속 운동이 제시되고 있지는 못하다. 7차 교육과정 시기는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이 제시된 시기(1학년(초1)~10학년(고1)), 고등학교(교육부, 1997) 2,3학년(11, 12학년)에서는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체육과 건강이라는 교과목의 ‘개인운동’영역에서 씨름과 태권도가 민속놀이의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다.

2) 수시 교육과정 개정 시기 (2007개정 체육과 교육과정-2015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1차~7차 체육과 교육과정 내 내용체계는 종목을 중심으로 구성된 반면,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부터는 종목이 아닌 5가지 영역(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안전))과 내용요소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내 민속 스포츠의 위치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자,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시기부터는 <표 1>에 내용체계 내 내용요소가 아닌 신체활동 활용 예시

에 나타난 민속 놀이 종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

4차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서부터 민속 운동이 가진 가치와 정신이 교육과정 내의 문서상에서 언급된 바 없는 것에 반해, 2007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2007)에서는 ‘여가 활동’ 영역을 통해 전통 놀이와 전통 놀이가 가진 가치를 그 내용으로 적극 제시하고 있었다. 전통 놀이를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는 고유한 신체 놀이(교육인적자원부, 2007, 209)’라 개념을 정의하고, 전통 놀이에 담긴 민족 공동체 의식과 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초등학교에서는 4학년에 여가와 전통놀이라는 소영역을 두고, 우리 조상의 전통여가 놀이, 민족사랑을 내용요소를 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신체활동 예시로 투호, 제기차기, 굴렁쇠 굴리기 등을, 학년별 지도내용으로 “(나) 우리 조상의 전통 여가 놀이를 실생활에서 실천한다.(다) 전통 여가 놀이에 참여하면서 민족 사랑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196)”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과거 우리나라의 여가 활동 유형과 양상에 대해 이해하고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학교(교육인적자원부, 2007)에서도 8학년(중학교 2학년) ‘여가 활동’에 ‘전통 여가문화’를 소영역으로, 내용 요소로 우리나라의 전통 여가 유형, 전통 여가 활동 체험, 전통 문화 의식을, 신체활동 선택 예시로는 줄다리기, 국궁, 널뛰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년별 지도내용으로 “(가) 우리나라의 전통적 여가 유형을 이해한다. (나) 다양한 유형의 전통적 여가 활동을 체험한다.(다) 전통적 여가 활동에 참여하면서 전통 문화 의식을 이해하고 실천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13)”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전 교육과정 시기까지 ‘민속 운동’ 혹은 ‘투기종목’으로 제시되던 씨름과 태권도는 2007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도전활동’영역 내 투기 도전 활동으로, 4학년과 8학년(중학교 2학년)에 지도되도록 편성한 것도 그 특징이다.

고등학교(교육인적자원부, 2007)의 경우 체육 교과목에서 전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교육과정 문서상 담겨있지는 않지만, 도전과 경쟁활동 내 투기도전이 제시되고 있어, 학교의 선택여부에 따라 지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 내용이 한 학년에 편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전의 내용은 학교 현장에서 가르쳐 질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여가와 전통 놀이(문화) 영역이 내용지도에 있어 반드시 가르쳐 져야 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고, 전통 놀이(문화)가 가진 가치의 교육을 드러내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 놀이’의 새로운 부활이 시작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2009개정 교육과정 시기

이 시기 체육과 개정 교육과정은 2011년 고시되었다. 2011개정 체육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1)에서는 1학년~9학년(중학교 3학년)까지 공통 교육과정 체육을, 고등학교(1~3학년)는 선택 교육과정으로 운동과 건강생활, 스포츠문화, 스포츠 과학의 교과목을 편성하였다. 2007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큰 틀에서 볼 때 내용 측면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지만, 교육과정 총론의 변화에 따라 학년군단위로(3~4학년군, 5~6학년군, 중학교 1~3학년군) 교육과정 내용이 제시된 것이 특징이다.

전통놀이는 3~4학년군의 여가활동 (나) 전통 놀이와 여가의 소영역 내에 제시되고 있으며, 내용요소로 의미와 특성, 전통 여가 놀이의 창의적 계획, 전통 여가 놀이 체험, 전통 존중이 제시되었

다, 신체활동 활용 예시는 사방치기, 비석치기, 자치기, 딱지치기, 구슬치기, 공기놀이, 투호, 윷놀이, 연날리기, 기마놀이, 진놀이, 줄다리기 등으로 다양하게 그 수를 증가하여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5~6학년군에 표적/투기도전 영역 내에서 씨름과 태권도, 택견 등을 신체활동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중학교(교육과학기술부, 2011)의 경우 전통 놀이를 문서상 제시하고 있기 보다는, 여가활동 영역 내 지구촌 여가라는 소주제 내에서 전통놀이와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놀이를 함께 다루고 있었다. 이에, 신체활동 활용 예시로 줄다리기, 널뛰기, 제기차기, 투호, 등이 제시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스포츠 문화 교과목의 신체활동 활용 예시로 태권도와 씨름을 제시하고 있다.

(3)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

초등학교(교육부, 2015)에서는 5~6학년군 도전 영역 표적투기활동에 신체활동 활용 예시에 씨름과 태권도가 포함되어 있었고, 중학교(교육부, 2015) 역시 도전 영역 내에 투기도전에서 씨름, 택견, 태권도를 다루고 있었다. 고등학교(교육부, 2015)에서는 체육교과 내 도전영역에서 신체활동 예시에 태권도, 택견, 씨름이 등장하고, 운동과 건강교과 내 운동과 건강관리 영역에서 씨름이 활용 예시로, 스포츠 생활 교과목의 스포츠 수행 영역에서 태권도가 신체활동 활용 예시로 제시되고 있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이전 교육과정에서 여가활동 영역의 내용이 건강의 영역에 포함되어, 여가와 관련된 내용이 대폭 축소되었고, 상대적으로 전통 놀이에 대한 교과 내용도 그 비중이 적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시기에서는 이전까지 다루었던 전통 놀이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씨름과 태권도 택견 정도만 투기도전 활동으로 넘겨

표 1. 각 교육과정 내용체계 내의 민속놀이 분포표

	초등						중등								
	영역	1	2	3	4	5	6	영역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1	2	3	
1차	체조 놀이 (맨손놀이-힘내기)	앉은씨름 외다리 씨름		- 한손씨름		몸씨름		투기	씨름 (남자)	씨름 (남자)	씨름 (남자)	씨름 (남자)	씨름 (남자)	씨름 (남자)	
	놀이 (물놀이)			씨름											
2차	놀이-물놀이			씨름				투기	씨름 (남자)	씨름 (남자)	씨름 (남자)	씨름 (남자)	씨름 (남자)	씨름 (남자)	
3차	기초력운동	씨름	씨름	씨름	씨름	씨름 태권도	씨름 태권도	투기	씨름 (남자)	태권도 (남자)	-	씨름(남자) 태권도(남자)			
	육상 운동	술래 잡기	술래 잡기												
	무용 (민속무용)		설날 놀이	제기 차기											
	지도상의 유의점	민속놀이(활쏘기, 그네뛰기, 널뛰기, 차전놀이, 고싸움놀이, 치기, 제기차기)						지도상의 유의점	민속놀이(활쏘기, 그네뛰기, 널뛰기, 차전놀이, 고싸움놀이, 장치기, 제기차기)						
4차	계절 및 민속 운동	-	-	팽이 치기, 연날리기	제기 차기, 사방치기	씨름 태권도	씨름 태권도	개인 및대인 운동	씨름 (남) 태권도 (남)	씨름 (남) 태권도 (남)	씨름 (남) 태권도 (남)	영역	투기(남)	씨름, 태권도	
5차	계절 및 민속 운동	-	-	간단한 민속 운동	간단한 민속 운동	여러 가지민속 운동	여러가지민속 운동	심동적 영역	개인 및 단체운동			투기			
6차	계절 및 민속 운동	-	-	연날리기, 굴렁쇠, 굴리기, 팽이 치기	널뛰기, 제기 차기	태권도, 씨름	태권도, 씨름	심동적 영역	씨름, 태권도 (지도상의 유의점)			씨름, 태권도			
									개인 및 단체운동			투기			
7차	게임활동	-	-	-	민속	민속		개인 및 단체 운동	-	씨름	-	-	영역	개인운동 씨름	
2007	여가활동 (여가와 전통놀이)	-	-	-	-	투호, 제기 차기, 굴렁쇠 굴리기	-	여가 활동 (전통여가문화)	-	줄다리기, 국궁, 널뛰기	-	-	-	-	-
	도전 (표적/투기)	-	-	-	-	태권도, 씨름 등	-	도전 (표적 투기)	-	태권도, 씨름 등	-	-	-	-	-
2011	여가활동 (나)전통 놀이와 여가	-		사방치기, 비석치기, 자치기, 딱지치기,				(다) 지구촌 여가	줄다리기, 널뛰기, 제기차기, 투호						

			구슬치기, 공기놀이, 투호, 윷놀이, 연날리기, 기마놀이, 진놀이, 줄다리기					
	도전활동			(나)표적/ 투기도전	도전 활동	(다)표적/ 투기도전	스포츠와 문화	
				씨름, 태권도, 택견		씨름, 태권도	씨름, 태권도	
2015	도전 (표적/ 투기도전)			씨름, 태권도	도전 (표적/ 투기 도전)	씨름 태권도, 택견	체육 (도전)	태권도, 택견, 씨름
							운동과 건강	(운동과 건강관리) 씨름
							스포츠 생활	(스포츠수행) 태권도

되었다.

장에서 확인된 결과라 볼 수 있다.

2 민속스포츠의 역사적 위치

1) 민속 문화를 담은 현대스포츠로의 발전 노력 미비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전통 체육활동이었던 민속놀이는 체육 문화의 한 부분으로써 학교체육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으며(홍서연, 2010, 131), 민속놀이의 전승을 위해서도 학교의 역할은 중요하다(김만태, 2010, 345;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4). 일부 학교에 국한되었지만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시행되는<그림 1> 민속 고유의 놀이는 학생들에게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동아일보, 1997. 11. 04). 또한 교육내용으로 강강수월래, 탈춤, 널뛰기 등을 가르친 현장의 체육교사들도 서구 스포츠가 편중된 일부 학생들의 참가를 야기하는 반면에, 전통놀이는 전체 학생들의 움직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학생들이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민속스포츠의 교육적 가치와 활용도가 학교 교육현



그림 1. 광주수창초등학교 광산고씨윷놀이
출처: 동아일보, 1997. 11. 04.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이후 민속놀이는 학교 교육 체제 내에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살리지 못한 채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부터는 오히려 문서상에서 사라졌다. 1,2,3차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서는 전통놀이가 체계적으로 편성된 것은 아니지만 나름의 가치를 전승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교육과정에서는 가치가 사라진 채 단순히 놀이로만 이어져왔다. 다행히,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을 통해 민속스포츠의 가치를 되찾고자 전통 여가의 내용을 교육과정 내에 적극 반영하며 발전의 저변을

마련하였으나, 실상 민속스포츠는 발전을 하지 못한 채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오히려 도태되었다. 즉,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민속놀이가 가진 교육적 가치를 바탕으로 두고 전통놀이를 다루고자 하는 노력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서구 스포츠 종목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이 주도하는 흐름에서 전통놀이는 그 가치를 잃고 교육과정과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반 스포츠가 가진 경쟁과 제도화 된 규칙, 재미 등에 이미 익숙해진 학생과 교사에게 민속놀이가 가진 재미를 전수하지 못하고, 교육내용으로써 발전하지 못한데 그 한계가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두 가지로 찾을 수 있다. 첫째, 민속놀이 내용자체의 발전에 대한 노력이 미비하였다. 그 동안 초등학교 수준에서 민속놀이는 단지 수단적 놀이 위주로 활용되었다. 민속놀이를 신체활동을 위한 도구로서 접근하는 방향은 민속놀이가 민속 문화의 가치 함양을 위한 교육내용으로 발전하는 가능성을 차단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상호, 2012, 54; 홍서연, 2010, 135). 이에 더해 체육과 교육과정 내 민속놀이가 다양하게 소개되고는 있으나 검증 및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상호, 2012, 54)은, 민속놀이가 단순히 움직임이 많은 신체적 활동이기 때문에 체육과 내용에 담고, 이를 나열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부터의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민속놀이에 대한 편견도 발전을 저해한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민속놀이 중 스포츠화 된 대표적 종목인 씨름과 태권도가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남학생 중심의 교과내용으로 치부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 신체활동이 민족의 전통 문화로써 교육되기 보다는 투기 종목의 일환으로 남학생들에게만 지도되도록 교육과정에 규정된 것 역시 민속스포츠로의 발전을 저해한 근본 원인

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 여학생 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학교에서는 오히려 민속놀이가 가진 보편적 재미와 간편성을 바탕으로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이끄는 좋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이의재, 진연경, 2018, 40). 씨름과 태권도가 투기 종목으로 되어 있어 남성에게 적합한 스포츠라 판단하는 편견은 사회적 통념이 낳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투기 종목으로 씨름과 태권도 등을 바라볼 때 그 특성은 남성적일 수 있지만, 씨름과 태권도라는 활동 고유에 담긴 우리 민족의 정신을 잇는 측면에서 체육 교육의 가치를 찾는다면, 남녀의 분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이나, 과거 우리의 교육에서는 간과한 측면이 있다.

민속놀이는 소멸·생존·전수·신생의 존재양상을 띤다(김만태, 2010, 336). 이는 민속놀이 자체가 그 시대 사람들의 문화를 반영하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민속놀이의 변화는 진행형이다.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도 과거의 민속놀이를 단순 체험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민속놀이가 가진 가치와 재미요인을 중심으로 민속 문화의 가치를 담아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며 배울 수 있는 현대 스포츠로의 신체활동 문화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사라진 민속놀이 내 공동체 문화

민속놀이에는 우리 민족의 공동체 문화가 담겨 있다. 학교 현장에서 체육활동으로 흔히 하는 줄당기기(줄다리기)는 마을 공동체 문화로서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라 할 수 있다. 줄당기기는 크게 3가지 목적으로 나뉜다(임재해, 2008, 221-223). 1차적으로는 단순히 승부를 가리는 재미를 즐기고, 2차적으로는 풍농을 기원하며, 3차적으로는 놀이 후 줄을 가져가 가정의 평화를 기원한다. 이렇듯 우리의 민속놀이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다. 조제 카이오와나 호이징가 등의 학자는 놀이를 단순한



그림 2. 빛나간 학교체육 출처 : 한겨레, 1989. 4. 20.

오락적 기능으로 소비성만을 강조한 무목적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의 민속놀이는 상당히 생산적이다(임재해, 2008, 225). 줄을 만드는 것부터 노동이 담겨있으며, 줄당기기를 통해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한 것은 우리의 민속놀이가 단순한 오락적 기능을 가진 것만으로 여길 수 없게 한다.

줄다리기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내 투기종목으로만 치부된 씨름과 같은 민속놀이 역시 마을 공동체의 놀이 문화라 할 수 있다. 씨름의 유래와 전통에서 볼 때 마을 공동체를 위한 제의(祭儀)를 목적으로 전승되어 왔다(정찬모, 지춘만, 2000, 5). 씨름 역시도 개별적으로 하는 놀이라 공동체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마을 공동체의 제의적 행위의 일환으로 행해지며 단순히 개인의 향락을 위한 소비적인 활동이 아닌 씨름 놀이의 동기와 의도를 신성시 하여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체육교육 내 민속놀이는 지금까지, 이러한 민속 놀이를 수단적 놀이로, 체육대회와 같은 이벤트성 활동으로, 혹은 남성적인(남성만하는) 스포츠 활동으로 치부해 버린 경향이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2015a)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에도 공동체 의식 함양이 주요 목적으로 세

워졌다. 사실, 민속 놀이를 통해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지는 아이디어는 최근에 생겨난 것은 아니다. 한겨레 신문(1989.4.20.)에 따르면 체육 수업을 통해 배우는 민속 놀이는 학생들에게 ‘우리 것’을 알게 해주는 동시에 공동체 의식을 내면화 시켜 주는 가치로운 활동으로 전하며, 서양 스포츠로 일변화 되는 학교체육의 모습에 주체성을 가져야 함을 주장하였다<그림 2>.

민속 놀이가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개인의식보다 공동체 의식을 존중하고, 우리 민족의 ‘신명’의 문화를 학생들에게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초등학교에 담긴 제기차기와 같은 단순 놀이 수준의 민속놀이만 남는 것은 향후 민속스포츠로의 발전에 있어서 지양해야 할 방향이다. 이러한 민족의 문화를 담기 위해서는 민속 놀이에서의 계열성을 갖추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공기화, 2010, 39). 초등학교 시기에는 아동들이 민속놀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상 행위 자체의 오락적 놀이중심으로 구성하고, 중등에서는 공동체의를 담은 여러 민속놀이를 교육한다면, 현재 학교교육의 주요 화두인 바른 인성을 가진 학생을 기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우리나라 민속스포츠의 역사적 과제

해방 이후 우리나라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민속스포츠의 역사적 위치를 살펴본 결과, 1~3차 교육과정 시기 민속 놀이의 가치를 지향하며 교육되어져 오던 민속스포츠는 이후 서구 스포츠 종목중심의 체육 교육과정 편성으로 투기도전 활동 내에서만 명맥을 유지해왔다. 2007개정 교육과정 시기 전통 여가 영역이 포함되며 재도약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문서상 투기도전 활동으로만 남게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부분에서는 현재 민속스포츠가 안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를 논의하였다.

1. 민속스포츠의 교육용 문화콘텐츠 개발

우리나라 민속스포츠에는 무궁무진한 교육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심승구, 2012, 50). 이 콘텐츠가 학교체육 안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교육용 콘텐츠로 변용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심승구(2012, 56)에 따르면, 민속스포츠에는 ‘경기로서의 스포츠요소’보다 ‘문화로서의 스포츠’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고 한다. 오정석(1997, 33)도 민속스포츠에는 우리나라 3가지 유형의 전통 문화(풍속적 차원, 유희적 차원, 그리고 무예적 차원)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설명한다. 풍속적 차원으로서의 민속스포츠는 주로 농경문화의 세시기적 리듬에 맞추어 우리 조상들이 즐겼던 각종 전통 놀이, 여가, 축제 등의 형식을 의미하며, 유희적 차원의 민속스포츠는 청소년 또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놀이 성격으로 참여했던 활동을 뜻한다. 무예적 차원의 민속스포츠는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주로 청·장년층들이 전문적으로 참여했던 활동을 의미한다.

유정에, 김선희(2007, 174)에 따르면, 스포츠 안의 문화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에 있는 문화적 요인들(예: 가치, 전통, 의례, 공동체, 축제 등)을 인지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콘텐츠로 개발되어야 한다. 즉 스포츠문화의 교육은 ‘스포츠를 아는 것’, ‘스포츠를 행하는 것’, ‘스포츠에 관해 아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스포츠문화 요소를 교육 내용으로 선정 및 조직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민속스포츠가 학교체육 프로그램 안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유입되려면, 민속스포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적 요소를 발굴하여 교육용 콘텐츠로 개발되어야 한다. 즉 민속스포츠가 기존의 학교교육 프로그램에서 지도되어 왔던 특정 스포츠(예: 축구, 농구 등)처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교육용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서는 안 된다. 민속스포츠에 관한 교육용 문화콘텐츠의 핵심 내용은 기본 기능, 경기 규칙, 경기 기능 및 방법 등이 아니라, 각 민속스포츠의 전통 문화적 측면이 담겨져야 한다.

2. 민속스포츠의 교육내용 체계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 민속스포츠의 교육용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작업과 함께, 민속스포츠의 내용 체계화 과제도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체육 프로그램은 학년별로 교육 내용이 선정 및 조직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정 스포츠가 학교체육 프로그램으로 유입되기 위한 선제적 조건은 교육 내용의 체계화이다(유정에, 2009, 10). 앞에서 우리나라 민속스포츠의 역사적 위치를 분석한 바와 같이, 제1차 체육과 교육과정부터 현행 2015개정 체육과 교육과정까지 우리나라 민속스포츠의 일부가 지속적으로 교육 내용으로 자

리를 잡아 왔다. 그러나 민속스포츠는 학교급(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학년별로 어떤 민속스포츠가 교육적으로 적합한 지에 대한 학문적 숙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학교체육 프로그램으로 도입 및 활용되어 왔다.

외국에서 유래되어 우리나라에 유입된 스포츠의 경우, 영역침범형 스포츠, 타겟형 스포츠, 네트형 스포츠, 필드형 스포츠(Griffin, Mitchell, & Oslin, 1997)로 내용 구조가 체계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개정 체육과 교육과정부터 이 스포츠의 내용 체계를 활용하여 각 학교급의 교육 내용으로 활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민속스포츠는 이와 같은 내용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민속스포츠의 내용 체계화 미비는 외국 스포츠의 관점에서 민속스포츠의 내용 체계를 수립해야 하는 교육적 모순에 직면하게 되는 현실을 초래한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민속스포츠의 내용 체계를 확립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민속스포츠의 내용 체계는 학교체육 프로그램으로써 교육적으로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3. 민속스포츠의 뉴스포츠화 노력

1990년대부터 뉴스포츠(newsports)가 우리나라 학교현장에 소개 및 활용되어 오다가 2007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철학적 패러다임 변화를 토대로 뉴스포츠가 공식적인 교육과정으로 유입될 수 있게 되었다. 뉴스포츠가 학교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게 된 요인은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뉴스포츠의 교육적 가능성과 의미를 공인한 점도 크지만, 동시에 뉴스포츠의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보급하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온 성과도 존재한다(한국뉴스포츠협회, 2014). 뉴스포츠의 진화는 처음 우리

나라에 도입된 년도부터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기존의 뉴스포츠의 개념과 범위를 국가사회적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재해석하고 확대함으로써 특정 시기 또는 특정 학교급에 국한하여 소개 및 유행되는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새로운 스포츠로서의 위상을 학교현장에서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속스포츠의 경우, 뉴스포츠의 소개, 유입 및 발전 과정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민속스포츠는 새로운 이미지 메이킹(image making)이 필요하며, 연령별 또는 대상별에 적합한 맞춤형 스포츠 유형으로 재창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민속스포츠는 주로 어린이나 노인들이 하는 스포츠이면서 명절에 하는 진부한 신체 놀이라는 선입견을 없애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민속스포츠는 독특한 민속스포츠의 본질과 전통을 준수하되, 민속스포츠특성별 구조와 형식의 변화 또는 용·기구의 변형 등을 통해서 대중화 및 표준화 작업에 수행해야 한다. 즉 민속스포츠의 뉴스포츠화 노력이 필요하다.

IV. 결론

최근의 학교체육은 스포츠 종목 중심에서 신체 활동 중심의 교육내용으로 변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 스포츠는 여전히 학교 체육교육 내에 설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 민속스포츠의 미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민속스포츠의 위치를 역사적으로 조명해 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 문서(1차~2015개정) 및 신문 등의 자료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1~3차 교육과정 시기의 민속놀이교육은

내용 편성에 있어 체계성은 부족했으나 민속놀이의 가치를 지향하며 교육되었다. 그러나 4차~7차 교육과정 시기, 서구 스포츠 종목 중심의 체육 교육과정 편성으로 투기도전 활동 내에서만 명맥을 유지해왔다. 그 후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는 전통 여가 영역이 포함되며 재도약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시 투기도전 활동으로만 남게 되었다.

둘째, 민속 스포츠는 내용 측면에 있어 체계성을 갖지 못한 채 초등학교에서는 단순한 ‘놀이’로, 중등에서는 단지 ‘투기’로만 다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대표적인 민속 스포츠인 씨름과 태권도는 그 가치를 중심으로 교육되기 보다는 단지 ‘남성’의 스포츠로만 치부하고 있었다. 이러한 민속놀이에 관한 편견은 학교체육교육 내에서 민속놀이가 발전할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민속스포츠에 담긴 우리의 ‘공동체’ 문화의 소실이다. 우리의 민속스포츠에는 우리민족이 오랫동안 행하며 이어온 가치와 정신이 담겨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학교체육교육 내에서는 그 가치와 정신이 사라지고, 겉치레의 형식만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1,2,3차 체육과 교육과정, 2007과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민속놀이가 가진 고유의 가치를 전승하고자 했던 노력이 엿보이지만, 교육과정 개발진들의 노력은 민속놀이 전문가와 현대 사회 문화의 벽에 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사라지거나 개인 투기 운동으로만 남아 있게 되었다.

교육과정 내 민속스포츠의 위상 회복을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의 노력이 더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체육사학과 스포츠교육학간의 학제간 융합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과거의 교육에서 민속놀이가 교육과정 개발자의 의지로 교육과정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교육콘텐츠의 부재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을 경험하였다.

학교 체육 내에서 민속놀이가 가치 있는 교육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체육사학자들과 스포츠교육학자들의 학제간 융합연구를 통해 여러 민속놀이에 대한 올바른 가치 정립을 바탕으로 그에 따른 교육 내용 체계를 정비하고, 체계화된 내용에 따른 교육 콘텐츠 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발자와 입안자는 학교체육의 교육적 가치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우리 고유의 것인 민속놀이의 도입에 대해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장의 교사들에게도 각종 연수를 통해 민속놀이를 교육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길러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현장의 교사들에게 민속스포츠의 전승을 위해 교육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책무를 가질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민속 스포츠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더불어 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최근의 우리 교육에 다시 한 번 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1). **체육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11).
- 교육부(1992a). **국민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1992-16호).
- 교육부(1992b). **중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1992-11호).
- 교육부(1992c). **고등학교 교육과정(I)**(교육부 고시 제1992-19호).
- 교육부(1997). **체육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 교육부(2015). **체육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11).

- 교육부(2015a).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 교육부.
- 교육부(2015b).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1).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2007). **체육과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1).
- 김만태(2010). 현대 세시풍속에서 민속놀이의 존재 양상과 향후 전망- 대구·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42, 333-362.
- 동아일보, 1985년 11월 18일.
- 동아일보, 1997년 11월 04일.
- 문교부(1955a). **국민학교 교과과정**(문교부령 제 44호).
- 문교부(1955b). **중학교 교과과정**(문교부령 제 45호).
- 문교부(1955c). **고등학교 교과과정**(문교부령 제 46호).
- 문교부(1963a). **중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 120호).
- 문교부(1963b). **고등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 121호).
- 문교부(1969). **국민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 251호).
- 문교부(1973a). **국민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 310호).
- 문교부(1973b). **중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 325호).
- 문교부(1974).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 350호).
- 문교부(1981a). **국민학교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 442호 별책 2).
- 문교부(1981b). **중학교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 442호 별책 3).
- 문교부(1981c). **고등학교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 442호 별책 4).
- 문교부(1987a). **국민학교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 87-9호).
- 문교부(1987b). **중학교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 87-7호).
- 문교부(1988). **고등학교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 88-7호).
- 손천택, 김일하(2015).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년민속체육대회 참가 경험과 의미. **한국초등교육**, 26(2), 67-82.
- 심승구(2012). 전통스포츠의 가치와 미래 전망. **스포츠과학**, 48-57.
-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2004). **마을 민속전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민속원.
- 오정석(1997). 근대스포츠의 수용과 전통스포츠의 근대화 양상에 관한 연구. **체육사학회지**, 2(1), 23-36.
- 유정애(2009). 신지식 기반 사회를 대비한 2007년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재해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6(1), 1-18.
- 유정애(2014).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중학교 체육진로교육의 방향과 과제탐색. **한국체육학회지**, 53(6), 235-246.
- 유정애, 김선희(2007). 왜 스포츠문화교육인가?. **한국체육학회지**, 46(4), 169-181.
- 유정애, 진연경(2016). 올림픽교육을 통한 자유학기제 체육활동의 융합수업 설계방안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3(1), 23-40.
- 이상호(2012). 초등학교 교과서 속의 민속놀이 실태와 문제-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19, 35-61.
- 이의재, 진연경(2018). 여학생 체육활성화 선도학교 운영 경험에 관한 셀프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5(1), 25-51.
- 이재학, 김혁출, 신재득(2014). 한국전통체육의 한

- 류화 전략수립.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2(3), 179-200.
- 임재해(2008). 마을 공동체문화로서 민속놀이의 전승과 기능. **한국민속학**, 48, 213-260.
- 정찬모, 지춘만(2000). 씨름의 유래와 고대 씨름의 발달과정. **한국체육사학회지**, 5(1), 1-20.
- 진연경, 유정애(2016). 국가수준 학교체육정책의 내용과 성과고찰. **교육과정평가연구**, 18(3), 343-372.
- 한겨레(1989). “빛나간 학교체육 (5) 수업내용”, 한겨레신문, 4월 20일.
- 한겨레, 1993년 3월 30일.
- 한국뉴스포츠협회(2014). **뉴스포츠의 이해**. 서울: 21세기 교육사.
- 홍서연(2010). 초등체육과 교육과정의 ‘내용’ 변천에 따른 전통놀이 고찰.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6(2), 131-140.
- 황지연, 유정애(2016).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육활동에 대한 체육교사의 인식. **한국체육과학회지**, 25(1), 949-962.
- Griffin, L., Mitchell, S., & Oslin, J. (1997). *Teaching sport concepts and skills: A tactical games approach*.ampaign, IL: Human Kinetics.
- 논문투고일: 2018년 05월 15일
 심사완료일: 2018년 06월 27일
 게재확정일: 2018년 06월 26일

1) 본 연구를 위해 수집·분석한 국가수준 교육과정 문서 목록

연번	개정 시기	교육과정 문서명	고시년도
1	1차 교육과정	국민학교 교과과정(문교부령 제44호)	1955
		중학교 교과과정(문교부령 제45호)	1955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 교과과정(문교부령 제46호)	1955
2	2차 교육과정	국민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251호)	1969
		중학교 교육과정	1963
		고등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121호)	1963
3	3차 교육과정	국민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310호)	1973
		중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325호)	1973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 350호)	1974
4	4차 교육과정	국민학교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 442호 별책 2)	1981
		중학교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 442호 별책 3)	1981
		고등학교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 442호 별책 4)	1981
5	5차 교육과정	국민학교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 87-9호)	1987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1987
		중학교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 87-7호)	1987
		고등학교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 88-7호)	1988
		고등학교 체육과 해설서	1988
6	6차 교육과정	국민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2-16호)	1992
		중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1992-11호)	1992
		고등학교 교육과정(I)(교육부 고시 제1992-19호)	1992
7	7차 교육과정	체육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1997
8	2007 개정 교육과정	체육과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1)	2007
9	2009 개정 교육과정	체육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11)	2011
10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육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1)	2015